

Non-Moi,
프랑스문화의 토대

이미 나는 나를 벗어나 살고 있네.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므로.
-대 데레사 수녀



1. 에로티즘의 의의, 라스코

생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교미와는 달리 의식적으로 쾌감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결합

- 시, 예술, 종교와 마찬가지로 수단이 아니라 절대적 목적이자 조건 없는 욕망.
- 조르쥬 바타유(Georges Bataille)는 이를 '저주 받은 몫'으로 정의한다. 에로티즘은 단순한 성에 관한 담론이 아니라 종교와 예술의 토대이며, 상식과 인습을 넘어 금기에 저항하는 모든 비생산적 소비 즉 종교와 예술을 비롯한 인간적 가치 전제 조건이다.

- 기독교 문화에서의 에로스 개념은 절대악으로서 금기의 대상이자 위반. 프로이트가 죽음의 본능으로서 타나토스(tanatos)를 선언한 이후,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선과 악, 생과 사, 꿈과 현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어떤 접점을 설정
- ‘신 없는 신학’의 토대를 닦던 조르쥬 바타유는 예술과 종교의 공동 토대로서 에로티즘을 제안
- 금기와 위반을 중심으로 디오니소스교와 기독교를 대립시킴
디오니소스교가 위반을 가능하게 하는 신성의 체험을 근본으로 하는 에로티즘의 종교였다면, 기독교는 에로티즘을 금기시하며 생산적 노동을 위한 종교.
- 일반적으로 그리스 예술과 철학을 현대 인류 문명의 시원으로 삼지만 이러한 앎의 문화 이전부터 인류는 놀이의 문화로서 예술을 남김.
- 라스코 동굴 벽화시대에는 이미 현대 문화에 뒤지지 않는 예술로서의 에로티즘의 벽화가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를 거듭한 조르쥬 바타유는 그 의미를 ‘작은 죽음’ 즉 "성적 오르가슴의 순간 느끼는 숨이 멎는 경련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인간만이 이 죽음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주장.





-동물들과 네안데르탈인이 아직 깨닫지 못한 에로티즘에 대한 성찰-공포와
황홀감 간의 본질적인 상응성을 보임.

-인간은 죽음의 이면으로서 서로를 위해 스스로 발가벗은 알몸과 알몸이 결
합하며 서로의 작은 죽음을 통해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며 공동체로서의
합일에 이름. 절정의 순간인 ‘작은 죽음’ 너머로 열리는 지속적인 생명에 이
르는 길이 에로티즘.

“에로티즘은 지적·과학적·외부적 대상이 아니라 내적 체험의 차원이며, 에
로티즘을 더 이상 사물화하거나 외적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내적 충
동으로 간주해야 한다.”(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에디시용드미뇌, 1957)

결국 에로티즘은 신성성의 현현이며, ‘비생산적 소비’의 전형으로 에로티즘
의 조건이 인간적 사유의 조건이며 남은 곧 나의 사유의 출구임.

2. 에로티즘의 조건, 농무아mon-moi

자아와 비아는 이분법적 관념론에 의거하여 서로 대립되는 용어로 인식되어 왔다. 非我로서의 'non-moi'(내가 아닌 존재)는 19세기 신조어로서 '나와 구별되는 것', '주체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독일어 'nicht-ich'의 번역어로 새롭게 생겨났다. 이후 'non'과 'moi'의 합성어로 자아(moi)의 대립어로 인식되어 옴.

하늘이 새의 영역이고, 물이 물고기의 영역이듯, 그의 영역은 군중이다. 그의 열정, 그의 직무는 군중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완벽한 만보자에게 있어서, 열정적 관찰자에게 있어서, 다수 속에, 물결침 속에, 움직임 속에, 순간적인 것과 무한한 것 속에 거처를 택하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다. 자기 집밖에 머무는 것, 그림에도 어디에서나 자기 집처럼 느끼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 한 가운데 머무는 것, 세상에 은둔하는 것, 이 모두가 말로서는 어설프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독자적이고 정열적이고 공평 무사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갖는 몇몇 최소한의 즐거움이다...매 순간 그를 늘 유동적이고 순간적인 삶 자체보다 더욱 생생한 이마쥬로 옮겨 드러내 주는 것은, 한 없이 내가 아닌 것을 갈구하는 나이다. 어느 날 그의 강렬한 시선과 암시적인 몸짓으로 상기된 대화의 자리에서 G씨는 말했다. “모든 인간, 모든 능력을 앗아가 버릴 만큼 너무도 진정한 어떤 슬픔에 짓눌리지 않는 모든 인간, 그리고 군중 속에서 권태스러워 하는 모든 인간은 멍청이! 멍청이이다! 나는 그를 경멸한다!”.

-<현대적 삶의 화가>, 보들레르

프리드리히 헤겔과 마르크스는 자아로부터의 소외를 통해 자아를 조망하고 노동을 실천하면서 타자와의 관계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 말은 노동에 의한 사회관계 이전에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자아를 개체를 떠나 계급적으로 본 것이나, 프로이트가 자아를 무의식을 통해 본 것은, 자아의 인식불가능성을 주장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의 말처럼 인간이 자의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동일선 상에 있음.

동시대의 시인 샤를르 보들레르 또한 이러한 자아와 비아를 주체와 객체의 대립으로 보는 자아 중심적 사유 태도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내가 아닌 존재(non-moi)'로서의 비아를 자아 속에서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자아 아닌 자아'로 표현하기에 이른다. 이 자아는 하나의 자아이자 곧 다수이며, 비아는 다수와 맺는 무수한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자아.

3. 에로티즘의 자세, 탈자아脫自我

불합리한 주장과 정신의 예속을 낳는 자기중심적 사유 태도에서 벗어나, ‘내가 아닌 존재(non-moi)’를 추구하는 예술가와 철학자들에 공통된 정신적 노력.

탈자아의 노력은 부정적 시대의 삶 속에서 가능.

자기중심주의 혹은 휴머니즘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자들의 관계를 추구하는 구조주의 사유의 토대를 이루는 개념이다.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철학을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프랑스의 비평가 데리다가 제창한 비평 이론인 해체주의(deconstuctivism) 혹은 그 이후의 사유의 핵심이기도 한 탈자아적 사유의 기원은 샤를르 보들레르와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이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자아 상실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자기완성은 '내가 아닌 존재non-moi로서의 완성을 뜻하며, 아름다움은 마치 이 존재의 성격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아름다움은 관조나 단순한 느낌의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상실을 요구.

구조주의와 해체주의(deconstuctivism) 사유의 공통점으로서 탈자아의 사유는 자기 시대와 공간에 예속된 사유의 틀을 벗어나 지금 · 여기 · 나를 벗어난 영역의 문제를 문제삼으려 하는 태도를 말하기에 탈자아의 개념은 구조주의적 사유.

4. 에로티즘의 실천, 惡

목적에 어긋난 실패 혹은 비판을 받을 만한 결과를 지칭하는 데 쓰인 라틴어 male에서 유래.

evil(Uebel, Böse), mal < lat. Male

정당하지 못하거나 옳지 못한 것. 일반적으로 비난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의지가 정당하게 대항하고 교정할 권리를 행사하려는 대상.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는 『변신론(辯神論) *Theodicee*』에서 악의 어원적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을 형이상학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구분. 형이상학적 악은 단순한 불완전에, 육체적 악은 고통에, 정신적 악은 죄에 있음.

기독교의 경우, 악을 선한 신과의 대립으로 규정해왔으나, 중세 고딕 시대에 들어서면 악과 지옥의 이미지를 천국보다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새기는 경향을 보인다. (고딕성당의 가고일, 바람의 정령, 나무의 신 호빗 등)

중세 이미지의 시대에서 텍스트의 시대로 바뀐 르네상스 시기를 넘어 원죄 개념이 퇴색한 계몽주의 시기의 사드 후작의 소설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 샤를르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서 악은 선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악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에 이른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조르쥬 바타유는 『문학과 악 *La littérature et le Mal*』을 통해 문학을 악의 표현이라 선언.

5. ‘농무아non-moi’의 성격, 아름다움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뜻하는 라틴어 ‘bellus’, 아름다움과 선함을 동시에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칼로스(καλός)로부터 유래.

아름다움은 우선적으로 자기 마음 상실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자기완성의 태도로서 ‘내가 아닌 존재 non-moi’의 성격과 같다. 그러기에 아름다움은 “신비로움과 비규칙성, 다시 말해 예기치 못한 것, 뜻밖의 것, 놀라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인의 마음 자세를 에토스(éthos)라 부르며 아름다움의 계기로 상정.

진정한 예술이란 아름다움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화 된 아름다움이 지니는 일종의 관습화된 권위 속에 내포된 오류를 지적하는 것(조르주 바타유).

바타유는 개별적 아름다움을 보편적 아름다움의 토대로 삼고 있어 아름다움의 보편적 아름다움 속에 내포된 개별적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예술가들의 성스러운 심적 투쟁을 높이 사고 있다. 즉 아름다움을 진정한 현대적 시인의 예술과 종교의 공통 토대로 작용.

바타유처럼 위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끄 라캉(Jacques Lacan)은 욕망의 정지, 욕망의 약화, 욕망의 해제를 아름다움의 기능(L'éthique de la psychanalyse 279)으로 상정.

Non-Moi, Non-Pipe



René Magritte - La Trahison des images




도는 도일 수 있지만 늘 도는 아니다.

道可道非常道

愛可愛非常愛


사랑은 사랑일 수 있지만 늘 사랑인 것은 아니다.
싸우기도 한다.



경험 상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자아를 넘어감)

- 생텍쥐페리, 《사람들의 땅》 (인간의 대지)



-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르코 복음서 8장 3절)

- 내 작업에 내 가슴과 영혼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잃었다. I put my heart and my soul into my work, and have lost my mind in the process.

- 我(ātman) -> 無我(anātman) -> 脫自我

Rimbaud

나는 남이다 'I' is the other. 나는 나이면서 남이다.

JE est un autre.

구리가 나팔 되기

Baudelaire

시인은 늘 '내가 아닌 나(Non-moi)'를 갈구하는 나



Moi

Non-Moi

ĀTMAN

voyage

ANĀTMAN



path of enlightenment
(bodhimārga)